

금호미쓰이화학, 전남 산업평화상 대상

금호미쓰이화학(대표 기욱)이 전남 산업평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제7회 산업평화상 대상 수상자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한 여수 금호미쓰이화학을 선정했다고 12월28일 발표했다.

금호미쓰이화학 1989년 창사 이후 무분규 사업장으로 도내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상생 및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상에는 광양항만 항운노동조합 서성기 위원장, 은상에 KC(주) 노상오 이사, 동상에 한국노총 목포지역본부 최영채 사무국장과 (주)경인엔지니어링 조경철 부장이 받았다.

시상식은 12월31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다.

<화학저널 2010/12/28>